

2026년 야구중계를 “어느 날부터 봐야 제대로 시작하는지”가 정리돼 있으면, 시즌 초반부터 놓치는 게 확 줄어들어요. KBO는 3월 28일 개막으로 이미 날짜가 딱 찍혀 있고, MLB는 3월 25일에 첫 경기, 3월 26일이 본격적인 오프닝 데이로 잡혀 있어요. 문제는 한국 시간하고의 간격인데, 이걸 시즌 내내 신경 써야 하더라고요. 새벽에 알람 걸어두고 보는 타입이면 더더욱요.

아래는 2026 정규시즌 기준으로 KBO와 MLB 개막 타이밍을 중심으로, 실제로 중계를 찾아보는 데 필요한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공식 일정이 업데이트되는 방식도 같이 묶어서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정이 언제 바뀌는지”가 은근히 더 중요하거든요.

KBO 2026 정규시즌, 개막은 3월 28일

KBO 2026 정규시즌은 **3월 28일** 개막이에요. 그리고 시즌은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로 진행됩니다. 초반부터 뽀뽀하게 돌아가는 리그라서, 개막전 이후 첫 주 일정만 제대로 잡아도 “이번 주는 야구로 채웠다”가 가능해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개막전은 5개 구장**에서 열린다는 점이에요. 잠실, 대전, 문학, 대구, 창원. 이 다섯 곳이 모두 개막전 편성 구장이예요. 그래서 어느 팀을 응원하든지, 보통은 첫 주 안에 연속으로 한 번씩은 중계를 잡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같은 팀이라고 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건 아니고, 경기 시간이 시즌 흐름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9월 중순 이후 경기 시작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KBO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시작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요. 잔여 경기 편성 공지에 따르면 **9월 15일 이후에는 시작 시간이 평일 18:30, 토요일 17:00, 일요일 및 공휴일 14:00**로 잡혀 있어요.

이게 왜 체감이 크냐면, 한국 야구중계 보면서 “퇴근하고 보려고 했는데 시작이 늦었네”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평일은 18:30이 기준이면, 퇴근이 늦는 날은 아예 2회쯤부터 따라붙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일요일이나 공휴일 14:00이면 낮에 편하게 보기도 하고요.

저는 예전 시즌에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원래 이 정도면 시작하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타이밍을 놓친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시즌 후반 일정은 공식 편성표 확인을 습관처럼 해두게 되더라고요. 결국 야구중계사이트에서 대충 시간 맞춰 보는 것보다, 공식 일정 반영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KBO 경기시간, 장소, TV/RADIO,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하는 감각

KBO 공식 사이트는 월별 일정, 일일 일정, 순위 페이지를 제공하고, 경기 시간과 장소는 물론이고 **TV/RADIO 편성, 결과**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조합이 진짜 편합니다. 경기만 뜨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서 중계가 잡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현장에서 응원하느냐 집에서 보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데도, 기본 틀은 같아요. 경기 시작 시각이 먼저고, 다음이 중계 채널이나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나 다음 경기 연결이 있죠. 공식 페이지는 이 흐름이 깔끔해서 야구중계 찾을 때 시간이 절약됩니다.

여기서 팀 하나. 경기 시간이 잡혔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천 취소나 순연 같은 변동이 생기면, 결국 “바뀐 최신 상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체크는 하루 전이나 당일 아침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좋아요. 이건 MLB도 똑같고요.

MLB 2026 정규시즌 개막, 3월 25일 첫 경기, 3월 26일 Opening Day

MLB 2026 정규시즌은 **3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 뉴욕 양키스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26일이 본격적인 Opening Day**예요. 즉, 한국으로 치면 “시작 알림은 3/25 쪽에서 먼저 오고, 3/26이 제대로 불이 붙는 날”로 보면 됩니다.

MLB 쪽은 전체 정규시즌 일정과 관람 방법을 공식 배포했고, 첫 경기들은 미국 동부시간(ET) 기준으로 편성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Opening Day에는 첫 경기 시작 시간이 **4:00 p.m. ET**로 공지된 경기와 **8:05 p.m. ET** 경기 같은 식으로 시간이 제시돼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시청 경험은 한국 시간으로 바뀌면서 달라져요.

한국에서 보는 MLB중계, 시차 때문에 “시간표 게임”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KST(UTC+9)**이고, 미국 동부시간(ET)은 시즌 시기에 따라 **UTC-5 또는 UTC-4(서머타임 적용)**를 사용해요. 그래서 한국이 보통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른** 상태가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MLB중계는 KBO보다 훨씬 이른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에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전에서 중요한 건 “ET 시간을 그대로 읽으면 헷갈린다”는 점이에요. 내가 봐야 하는 건 한국 시간 기준이니까요.

저는 MLB 개막 시즌에 특히 이런 실수가 잦았어요. “ET 기준이면 이 정도겠지” 하고 대충 계산했다가, 실제 중계 시작 몇 시간 차이로 인해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습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정 확인은 공식 schedule 페이지에서 하고, 한국 시간으로 옮길 때는 항상 ‘13시간인지 14시간인지’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요.

아래는 계산할 때 자주 놓치는 포인트만 짧게 정리해볼게요.



- 미국 동부시간(ET)은 시기에 따라 UTC-5 또는 UTC-4로 바뀔 수 있다

- 한국은 KST(UTC+9)라서 ET보다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르다
- Opening Day처럼 공지된 시작 시간이 여러 개로 잡히면 한국 시간도 그만큼 달라진다
- 결국 시청 시간은 ‘공식 일정 + 한국 시차 확인’ 조합으로 결정한다

이 정도만 잡아도 MLB중계에서 “놓칠 뻔한 경기”가 확 줄어듭니다.

야구중계사이트를 볼 때, 뭘 먼저 확인해야 덜 틀리나

사람들이 야구중계사이트를 찾는 이유는 대개 단순해요. 공식 페이지를 직접 보기도 하지만, 익숙한 인터페이스나 빠른 알림 때문에 다른 곳도 같이 보게 되죠. 다만 야구중계는 변수가 있어요. 경기 시작 시간, 중계 채널, 우천 취소나 순연 같은 것들요.

그래서 저는 야구중계를 “정보 수집”이 아니라 “시청 준비”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준비 관점에서는 체크 순서가 있어요.

-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경기 시작 시각과 매치가 맞는지 확인
- TV/RADIO 편성, 중계 채널이 바뀐 건 없는지 본다
- 우천 취소나 순연 여부가 업데이트됐는지 확인한다
- 한국 시간으로 내가 실제로 봐야 하는 시작 시각을 다시 계산한다
- 여러 경기를 같이 보려면 최소 1개는 확실한 경기부터 먼저 고른다

이렇게 보면 야구중계사이트를 보더라도 “뭘 믿고 뭘 버릴지” 판단이 빨라져요. 특히 MLB는 시차가 변수라서, 한번 틀리면 전체 루트가 흔들리거든요.

KBO와 MLB 개막 타이밍을 한눈에 잡는 현실적인 감각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KBO: 3월 28일 정규시즌 개막, 개막전은 잠실, 대전, 문학, 대구, 창원 5개 구장
- MLB: 3월 25일 자이언츠-양키스 첫 경기, 3월 26일 본격 Opening Day
- KBO는 9월 15일 이후 시작 시간 패턴이 정리돼 있다(평일 18:30, 토요일 17:00, 일요일 및 공휴일 14:00)
- MLB는 ET 기준 일정이 공지되고, 한국은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르다(서머타임 구간 영향)

이 틀만 잡아도 “이번에 야구중계 언제부터 제대로 달리냐”가 명확해져요. 그리고 실제 시청 습관은 두 리그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KBO는 저녁 시간대 중심으로 계획이 쉬운 편이고, MLB는 시차 때문에 처음엔 체력 관리가 먼저가 되죠.

개막 초반에 체감되는 일정 운영 방식, 그리고 그에 맞춘 시청 전략

개막전이 다가오면 다들 “어떤 경기부터 봐야 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중요한 건 경기의 화제성도 있지만, 일정 운영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KBO는 팀당 144경기를 소화하는 장기 레이스고,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시작 시간이 정해진 규칙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내가 이 팀을 얼마나 자주 챙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중반 이후에는 시작 시간과 휴식일 패턴을 더 신경 쓰는 식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9월 15일 이후 시작 시간 안내가 있으니까, 그 즈음부터는 체크 빈도를 조금 더 올리는 게 좋아요.

반대로 MLB는 개막 시점부터 일정이 뽁뽁하게 이어지고,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나 오전이 섞일 수 있어요. 이때는 “하루에 한 경기만 확실히 보자”가 오히려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 경기를 다 보려다 보면 중계 시작 타이밍을 놓

치고, 그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mlb중계](#) 그래서 저는 개막 초반에는 한 경기 중심으로 루틴을 잡고, 나머지는 하이라이트나 재시청으로 보완하는 쪽이 더 만족도가 높았어요.

이런 선택이 야구중계를 더 재밌게 만들더라고요. 결과에 휘둘리기보다, 내 컨디션과 일정에 맞춘 구조로 보는 게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막 일정”을 실제 시청으로 바꾸는 방법

개막 일정은 종이 위에만 있으면 그냥 낱알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당일 변동과 중계 편성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야구중계 준비는 딱 두 가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시작 시각, 다른 하나는 중계가 어디서 잡히는지.

KBO는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월별, 일일 일정과 결과, TV/RADIO 편성까지 같이 보기가 가능하고, MLB도 schedule 페이지에서 당일 경기와 팀별 일정을 확인하는 흐름으로 정리돼 있어요. 결국 “최신 반영”을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야구중계사이트로 빠르게 들어가더라도, 중요한 경기는 공식 일정 기준으로 한 번만 교차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면 덜 흔들립니다.

2026 시즌 개막은 이미 캘린더에 박혀 있어요. KBO는 3월 28일, MLB는 3월 25일 첫 경기와 3월 26일 Opening Day.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내가 어떤 시간대에 맞춰 볼지 정하는 게임이 시작됩니다.

원하면 내가 쓰는 시청 루틴 기준으로, 예를 들어 “평일은 저녁만”, “주말은 낮부터”, “MLB는 새벽도 가능” 같은 조건을 말해줘요. 그러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덜 놓치고 재밌게 이어지는지, 현실적으로 짜서 같이 정리해줄게요.